

넥센타이어, 신용등급 A로 꺾충

한국기업평가, BBB+에서 2단계 상향조정 ... 매출·수익성 호조

넥센타이어의 신용등급이 2단계 상향조정됐다.

넥센타이어에 따르면,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는 넥센타이어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+에서 A로 2단계 상향조정하고 등급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.

넥센타이어는 향상된 시장지위와 브랜드 인지도, 우수한 영업 수익성 및 현금창출능력 등을 인정받아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됐다고 설명했다.

넥센타이어는 2009년 영업이익률이 16.8%로 타이어 최상위권에 속했으며 매출액이 28% 증가하는 등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됐다.

한국기업평가는 넥센타이어에 대해 “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고부가가치 타이어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토대로 내수 및 해외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”며 “최근에는 중대형 대표 차종까지 OE(차량부착용 타이어) 공급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되고 있다”고 평가했다.

넥센타이어는 초고성능, 친환경타이어 생산을 위해 경남 창녕에 총 50만㎡(15만평)의 제2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, 2010년에는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11/22>